

## 현대국어 경어법의 체계

임 동 훈 \*

현대국어 경어법은 크게 주체경어법과 청자경어법으로 나뉜다. 객체경어법은 비록 ‘-님’, ‘께’ 등을 통해 목적 인물(target)을 표시할 수 있으나 문법적 수단을 통해 규칙적으로 표시되지 않으며, 단어 차원에서 유효적으로 쓰이는 ‘드리다’류도 중세국어의 ‘-습-’과는 성격을 달리하므로 주체경어법, 청자경어법과 같은 차원에서 다루기 어렵다.

주체경어법은 어휘와 문장 구조 양 측면에서 관습적으로 부호화되어 있다. 어휘적 경어는 유효적 단어, 존칭 접사, 존칭 어근, 보충법에 의해 실현되는데, 유효적 단어로는 한자어나 저빈도어 등의 비일상어와 완곡어가 쓰인다.

주체경어법은 통사적으로 서술어에 어미 ‘-시-’가 붙어 규칙적으로 표시되는데, ‘-시-’는 발화 참여자 간의 상위자-비상위자라는 사회적 관계를 유효적으로 가리키는 사회적 지시의 기능을 한다. 사회적 지시는 경칭대명사, 호칭어, 유효적 단어 등처럼 단어 차원에서 실현되기도 하고 ‘-시-’처럼 문법 형태소에 의해 실현되기도 한다. 전자는 화자와 관련 대상 간의 사회적 거리에 따라 작동되며 관련 대상이 개체이나 개체의 동작이냐에 따라 명사 경어나 동사 경어로 나타난다. 반면 후자는 화자가 자신과 개별적인 관계에 놓인 상위자의 관점을 취했을 때 후행 서술어가 이에 관여적이라고 판단되면 작동된다는 점에서 파생적이라는 성격을 띤다.

‘-시-’가 나타내는 이러한 사회적 지시는 ‘-시-’의 존대 기능을 잘 설명해 준다. 즉 화자가 상위자나 상위자에 관여적인 사태를 유효적인 문법 수단을 이용하여 비상위자나 비상위자에 관여적인 것과 구별지어 지시함으로써 그에 대한 존대 행위를 간접적으로 수행한다. ‘-시-’가 존대소가 아니라 지시소라는 주장은 ‘-시-’가 선어말어미 중에서 어간에 가장 가까이 결합하는 현상도 비교적 잘 설명한다.

\* 한림대학교 국어국문학과

‘-시-’가 결합하는 사태는 동사구로 실현됨이 일반적이나 사태에서 두드러지게 인식되는 명사구가 존대 대상에 화용론적으로 결속되는 상황에서는 사태가 절 단위로 실현되기도 한다. 그리고 이처럼 ‘-시-’의 작용역이 확장된 경우는 ‘-시-’가 화자의 태도 표명에 적극적으로 이용되기도 한다.

그간 청자경어법의 등분을 기술할 때에는 청자를 얼마나 높이 대우하느냐에만 초점을 두었다. 그러나 청자에 대한 경어에는 화자의 지위가 간접적으로 드러날 수밖에 없어 그 등분을 논할 때에는 [청자상위], [청자하위]라는 자질 외에 [화자상위], [화자하위] 자질도 설정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복수의 자질을 상정하면 왜 청자경어법의 등급이 여럿 존재하는지도 쉽게 설명된다.

청자경어의 등분 체계를 세울 때에는 각 등급 사이의 관계를 이원적으로 볼 것이냐, 일원적으로 볼 것이냐의 문제와 하계체, 하오체를 다른 등급과 동일하게 등분 체계의 일원으로 다룰 것이냐 하는 문제가 있다. 본고는 등급 사이의 넘나들 현상, 화청자의 범위 등을 고려해도 하계체, 하오체를 포함하여 각 등급을 일원적으로 세우는 것이 합당함을 주장하였다.

핵심어 : 주체경어법, 청자경어법, 객체경어법, 사회적 지시, 경어 등급

## 1. 서론

경어법은 존대법(허용 1954, 김석득 1968), 대우법(성기철 1970, 서정수 1972, 임홍빈 1986), 높임법(허용 1975, 교육부 1991) 등의 용어로도 불린다. 경어법은 기본적으로 발화 참여자들 사이의 사회적 관계를 표시하는 문법 현상이므로 ‘존대’, ‘대우’, ‘높임’ 등의 용어를 통해 언어 사용자가 관련된 발화 참여자를 어떻게 높여 말하고 대우하는지를 포착하려는 것은 일리가 있다.

그러나 본고는 경어법에서 언어 사용자가 수행하는 역할에 주목하면서도 의미(meaning)와 용법(use)을 구분하는 관점에서 이승녕(1964), 박양규(1975)에서처럼 ‘경어법’이란 용어를 사용하고자 한다. 경어법이

란 경어가 보이는 의미와 문법에 중점을 둔 용어로서 비경어도 경어와 대립 관계에 놓이면 경어법의 영역 안에서 해석된다.

문법형태의 의미와 그것이 일정한 문맥에서 사용되는 용법은 구분될 필요가 있다. 예컨대 ‘-시-’의 의미는 ‘-시-’의 용법을 세밀하고 광범위하게 고찰하여 추상해 낼 수밖에 없다 하더라도 ‘-시-’의 용법이 바로 ‘-시-’의 의미인 것은 아니다. 발생론적으로는 언어 사용자 사이의 사회적 관계가 개념화되고 부호화되어 ‘-시-’의 의미가 생겨났겠지만 ‘-시-’의 의미 자체는 일정한 자율성을 띠면서 ‘-시-’의 용법을 지휘하기도 하기 때문이다. 본고는 경어법 요소의 의미와 용법을 구별하는 토대 위에서 이들의 연관성을 포착하려 한다.

현대국어 경어법의 체계와 관련해서는 주체경어법 요소와 청자경어법 요소가 배타적 분포를 이루지 못하는데 이들이 경어법이란 범주로 묶일 수 있느냐는 질문이 있을 수 있다(강창석 1987). 그러나 이들은 모두 발화 참여자 사이의 사회적 관계를 가리키는 사회적 지시의 방식들이라는 점에서 한 가지 범주로 묶을 수 있다. 이는 의미격조사와 문법격조사가 배타적 분포를 보이지 않아도 격이란 문법 범주로 묶이는 사실에 비견된다.<sup>1)</sup>

현대국어 경어법에는 주체경어법, 청자경어법 외에 객체경어법이 더 설정될 수 있다. 그러나 객체경어법은 비록 ‘-님’, ‘께’ 등을 통해 목적인물(target)을 표시할 수 있으나 문법적 수단을 통해 규칙적으로 표시되지 않으며, 단어 차원에서 유효적으로 쓰이는 ‘드리다’류도 중세국어의 ‘-습-’과는 성격을 달리한다는 점에서 현대국어 경어법의 체계를 다루는 본고에서는 제외하고자 한다.<sup>2)</sup>

1) 의미격 조사와 문법격 조사의 구분은 임동훈(2004) 참조.

2) ‘드리다’류는 상위자에 대한 비상위자의 동작 자체를 가리키나 ‘-습-’은 해당 사태가 상위자에 대한 비상위자의 동작임을 표시한다는 차이가 있다. 그리하여 중세국어에서 객체경어법이 쓰일 때에는 ‘드리다’류에도 다시 ‘-습-’이 결합되었다. 현대국어 경어법 체계를 세울 때에는 ‘드리다’류를 들어 객체경어법을 설정하기보다 문체상의 제약은 있지만 다음 예에서 쓰인 ‘사오’류를 포함하는 것이 더 합당할 것이다.

## 2. 주체경어법

### 2.1. 경어의 종류

인간의 판단 행위는 어떤 개체를 도입하고 이에 대해 일정한 서술을 하는 과정으로 이루어진다. 이때 개체가 단순히 서술의 대상이 되는 데 머물지 않고 서술 행위를 통제하거나 서술 행위에 의해 규정될 때 흔히 이를 주체라 한다. 주체는 대체로 문장 구조에서 주어로 실현되나 주어의 지시체와 항상 일치하지는 않는다. 이 점에서 주체경어법이라고 할 때에는 통사론에 국한되지 않으며 판단 행위에 대한 언어 사용자들의 인식 내용이 어떻게 언어적으로 관습화되어 통사론에 반영되는지, 나아가 통사론에 반영된 관습화된 내용이 어떻게 언어 사용자들에 의해 이용되는지가 논의의 초점이 된다.

주체경어법은 어휘와 문장 구조 양 측면에서 관습적으로 부호화되어 있다. 주체경어와 관련된 어휘적 경어는 크게 개체나 개체와 관련된 사물 등을 가리키는 명사 경어와 개체의 특정한 동작을 가리키는 동사 경어로 나눌 수 있는데, 전자는 평어와 대립되는 경어일 뿐 주체경어 고유의 어휘가 아니나 후자는 주체경어에만 쓰이는 어휘라는 차이점이 있다.

- (1) ㄱ. 유표적 단어: 진지, 말쑥, 춘추(春秋), 덕(宅), 생신(生辰), 부인(夫人)  
       ㄴ. 존칭 접사: 과장님, 형님, 아버님  
       ㄷ. 존칭 어근: 귀사(貴社), 옥고(玉稿), 영식(令息)
- (2) ㄱ. 유표적 단어: 별세하다, 서거하다, 승하하다, 돌아가다  
       ㄴ. 보충법: 주무시다, 잠수시다/잠수다<sup>3)</sup>

(예) “이번 토요일에 결혼식이 있사오니 부득이 먼저 떠나옵니다.”

- 3) 조남호(2005)에서는 ‘잠수시다’를 ‘잠수다’에 ‘-시-’가 결합된 형태로 보고 대우어에서 제외하였다. 그러나 ‘잠수시다’는 ‘잠수다’에 ‘-시-’가 결합한 형식으로 보기 어렵다는 게 본고의 견해이다. 본고는 ‘잠수시다’가 자음어미 앞에서 ‘잠ㅅ다’로 줄고 이 ‘잠ㅅ다’가 사불규칙 용언으로 재해석되어 어간 ‘잠ㅅ-’가 등장한 뒤

‘상위자-비상위자’ 구분을 언어적으로 표시할 때에는 일반적으로 상위자 표시에만 유표적 수단을 사용한다. (1ㄱ)은 한자어(나이:춘추, 집:댁)나 저빈도어(생일:생신) 등의 비일상어가 유표적 수단으로 쓰인 예이고 (1ㄴ, ㄷ)은 특정한 접사나 어근 결합형이 유표적 수단으로 쓰인 예이다. 그리고 (2ㄱ)은 저빈도어와 완곡어(죽다:돌아가다)가 유표적 수단으로 쓰인 예이며 (2ㄴ)은 특별한 어간이 유표적 수단으로 쓰인 예이다.<sup>4)</sup>

문장 구조와 관련된 문법적 경어에는 존칭 조사 ‘께서’와 존칭 어미 ‘-시-’가 있다. ‘께서’는 주어 성분 뒤에만 결합하고 ‘-시-’는 주체의 행위, 속성 등을 나타내는 서술어에 결합한다. 그런데 어휘적 경어와 문법적 경어는 그 성격이 같지 않아 어휘적 경어인 (2ㄱ)의 ‘별세하다’류에도 다시 ‘-시-’가 결합될 수 있다. 중세국어에서 객체존대의 어휘적 경어 ‘드리다’에 다시 객체존대의 문법적 경어 ‘-습-’이 결합되는 현상과 같다.

문법적 경어에 속하는 ‘-님,께서, -시-’ 사이에는 경어 강도(strength)의 차이가 있다.

- (3) ㄱ. \*과장이 오면/\*과장이 오시면/과장님이 오면 그 문제에 대해 여쭙보자.  
 ㄴ. 과장님이 오면/\*과장님께서 오면 그 문제에 대해 여쭙 보자.  
 ㄴ'. 교장 선생님께서/\*교장 선생님이 축사를 하시겠습니다.  
 ㄷ. 선생님이 감옥에서 고통스러워할수록/\*고통스러워하실수록 가족들도 밖에서 그만큼 극심한 고통을 겪었다.  
 ㄷ. 당신은/\*당신께서는 언제 오셨소?  
 ㄷ'. 선생님은/선생님께서는 언제 오셨어요?

뒤이어 활용계열의 유추적 평준화에 의하여 ‘잡수다’가 생겨난 것으로 해석한다. 그래서 ‘잡수다’와 ‘잡수시다’는 경어 강도에서 별다른 차이가 없다.

- 4) 영어도 경어를 나타내는 유표적 수단으로 저빈도어(예: help:aid)와 라틴어계(예: building:residence)를 이용한다. 또 독일어에서는 3인칭 복수 Sie를 이용하여 2인칭 단수에 대한 경어를 표시하고 프랑스어에서는 2인칭 복수 vous를 이용하여 2인칭 단수에 대한 경어를 표시한다. 이에 대해서는 Levin, Long & Schaffer(1981), Brown&Levinson(1987), Levin & Novak(1991), 박양규(1991) 참조.

‘아버지’처럼 상대적 신분 관계를 나타내는 친족 명칭이 아닌 경우는 ‘-님’이 빠지면 비경어로 인식된다. 그래서 (3ㄱ)에서 보듯이 화자가 존대 의사를 가진 인물에게 ‘-님’을 붙이지 않으면 비문이 된다. 그러나 이 경우 ‘-시-’는 빠져도 바로 비경어로 인식되지 않는다. ‘-시-’에 의한 존대는 간접적이어서 (3ㄷ)에서 보듯이 주체가 ‘-님’으로 존대된 경우에도 ‘-시-’가 쓰이지 못하기도 한다.

반면에 (3ㄴ)에서 보듯이 ‘께서’는 ‘-님’과 달리 ‘-시-’가 쓰이지 않으면 정상적인 문장이 되지 못한다. ‘께서’로 표현하는 경어 강도라면 으레 ‘-시-’가 요구되기 때문이다. (3ㄴ’)은 존대 인물이 현장에 있을 뿐더러 또 현장의 주인공이 되는 특별한 경우에는 ‘께서’가 빠지기 어려움을 보여 주는 예이다(이익섭 2005).<sup>5)</sup>

‘께서’의 경어 강도가 높음은 ‘-시-’는 결합할 수 있으나 ‘께서’는 결합이 불가능한 경우에 의해서도 뒷받침된다. (3ㄹ, ㄹ’)에서 보듯이 서술어에 ‘-시-’가 쓰이더라도 하오체에는 ‘께서’가 쓰일 수 없고 해요체에는 ‘께서’가 쓰일 수 있기 때문이다(박양규 1993). 이는 경어 강도가 약한 ‘-시-’는 비상위자에게도 쓰일 수 있으나, 경어 강도가 강한 ‘께서’는 비상위자에게는 쓰이기 어려움을 잘 보여 준다.

## 2.2 ‘-사-’의 의미론

### 2.2.1. 존대설

‘-시-’의 의미에 대해서는 크게 세 가지 주장이 있어 왔다. 첫째는 ‘-시-’가 화자의 존대 의사를 표시하는 문법 형식이라는 것이고, 둘째는 상위성 자질을 지닌 개체가 주어 자리에 올 때 이에 호응하여 서술어에 나타나는 문법 형식이 ‘-시-’라는 것이며, 셋째는 ‘-시-’가 발화 참여

5) ‘과장께서’란 형식이 자연스레 쓰이는 경우도 있다. 이는 사적인 관계를 부각시키기 어려운 공적인 자리에서 화자가 ‘-님’을 빼고 이를 보충하기 위하여 ‘께서’를 붙이는 경우이다. 일종의 전략적 용법이라 할 것이다.

자 간의 특정한 사회적 관계를 유표적으로 가리키는 요소라는 것이다.

첫째 주장은 존대설이라 할 만한 것으로 다시 존대의 대상을 무엇으로 보느냐에 따라 주체 존대설, 주제 존대설, 경험주 존대설로 나뉘고 둘째 주장은 호응을 유발시키는 내용이 무엇이냐에 따라 신분성 표지설, 무정화 표지설, 일치소설로 나뉜다.

주체 존대설은 주체를 주어의 지시체로 이해하고 ‘-시-’는 이러한 주체에 대한 화자의 존대 의향을 표시하는 문법 형식으로 본다. 즉 화자의 존대 의향을 ‘-시-’의 쓰임에서 가장 중요한 것으로 간주하는 것이다(허웅 1961, 1962). 이처럼 화자의 존대 의향을 강조하는 이 이론은 다음 예처럼 존대하려는 주체가 상위자일 때뿐만 아니라 하위자일 때에도 ‘-시-’가 쓰이는 현상을 잘 설명해 준다는 이점이 있다. 하오체나 하계체를 쓸 만한 하위자라 하더라도 화자의 존대 의향은 있을 수 있기 때문이다.

(4) ㄱ. 아, 오늘 당직이 김 선생이시요?

ㄴ. 고생하셨네. 선친께서 살아 계셨다면 이 감격을 나누는 것인데...

그러나 화자의 존대 의향이란 화자와 어떤 인물 사이에 존재하는 사회적 거리에서 연유하는 파생적인 개념으로 볼 여지가 있다. 즉 존대 의향을, 상위자로 판단되는 인물에게 자신이 상위자로 대접하고 있음을 인식시키려는 욕구에서 표출된 것으로 이해하는 것이다. 더구나 아래 (5ㄱ)에서 보듯이 화자의 존대 의향이 부여된 주체이더라도 그 서술어에 ‘-시-’가 실현되기 어려운 경우가 있고, (5ㄴ)에서 보듯이 주체가 아니더라도 관련된 서술어에 ‘-시-’가 실현된 경우가 있어 위의 이론은 그 설명력이 생각만큼 크지 않다.

(5) ㄱ. 선생님이 토론에서 밀리자/\*밀리자 체자들은 어쩔 줄을 몰라했다.

ㄴ. 사모님의 고통이 크시겠는데요.

주체 존대설은 (5)와 같은 예 외에도 이중주어문에 나타난 ‘-시-’도 설명하기 어렵다는 문제가 있다. 주체 존대설은 아래 (6ㄱ)에 대해 ‘수완’을 존대함으로써 간접적으로 그 앞의 ‘선생님’을 존대한다고 주장하나(허웅 1962, 성기철 1970, 서정수 1972), 임홍빈(1976)에서 지적한 바처럼 ‘-시-’는 중간의 매개물을 통하지 않고 직접 문두의 체언을 향한다고 보는 것이 직관에 부합하고 (6ㄴ)에서는 ‘티’를 존대함으로써 ‘소대장님’을 존대한다고 설명하기 어렵기 때문에 이 역시 문제가 된다.<sup>6)</sup>

- (6) ㄱ. 선생님은 수완이 좋으시다.  
 ㄴ. 소대장님께서 왼쪽 눈에 티가 들어가셨어.

주체에 대한 간접 존대설이 가지는 문제점을 해결하고 ‘-시-’가 처격어를 존대하는 듯이 보이는 예를 설명하기 위해 주체 존대설에 이어 주체 존대설이 등장하였다. ‘-시-’는 주체화된 요소와 관련을 맺는다는 주장이 그것이다(임홍빈 1976, 서정수 1972, 1984).

이 이론에서 다음 (7ㄱ)은 더 이상 간접 존대설로 설명할 필요가 없다. ‘-시-’가 바로 문두의 주체를 존대한다고 보면 되기 때문이다. 또 주체 존대설은 (7ㄴ, ㄷ)에서 ‘-시-’가 처격어 ‘아버님께는, 김 선생님 댁에도’를 존대하는 현상도 잘 설명해 준다.

- (7) ㄱ. 선생님은 키가 크시다.  
 ㄴ. 아버님께는 지팡이가 있으시다.  
 ㄷ. 김 선생님 댁에도 책이 많으십니까?  
 ㄷ. (김 선생님은/김 선생님) 김 선생님 댁에도 책이 많으십니까?  
 ㄷ'. \*김 선생님 댁에도 책이 많으실 것이다.  
 ㄷ. \*아버님은 철수가 붙잡으셨다.

그러나 (7ㄷ)처럼 ‘-시-’가 처격어를 존대하는 듯이 보이는 예는 (7ㄷ')

6) (6ㄴ)의 예는 이윤하(1989)에서 가져온 것이다.



에서 보듯이 그 앞에 주어나 호격어가 상정될 수 있어 처격어가 아니라 이들이 ‘-시-’와 관련된다고 보는 것이 더 합당할 것이다. (7ㄷ’)에서 보듯이 똑같은 처격어라 하더라도 그 앞에 주어나 처격어가 상정되기 어려운 구문에서는 ‘-시-’가 쓰일 수 없기 때문이다. 더구나 (7ㄱ)에서 보듯이 모든 주제가 존대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니어서 주제 존대설은 주제 존대설에 대한 보완은 될지언정 그 자체로 자족적인 이론은 되지 못한다.

‘-시-’가 존대 대상의 경험과 관련된다는 논의는 박양규(1975) 이래 임홍빈(1976, 1985, 1990)에서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

- (8) ㄱ. 바람이 부니까, (나무 위의) 아버님도 막 흔들리시나 보더라.  
 ㄴ. 바람이 부니까, (나무 위의) 아버님도 막 흔들리더라.  
 ㄴ’. 바람이 부니까, (나무 위의) 아버님도 막 흔들리시더라.

박양규(1975)에서는 (8ㄱ)의 ‘아버님’은 흔들리는 사태를 느끼거나 인식하는, 즉 경험하는 인물로 화자에게 인식되어 ‘-시-’가 쓰였으나 (8ㄴ)의 ‘아버님’은 그러한 사태를 경험할 수 없는 무정물처럼 인식되어 ‘-사-’가 쓰이지 않았다고 보았다. 전자의 ‘아버님’은 경험주(Experiencer) 기능을 지니나 후자의 ‘아버님’은 대상(Theme) 기능을 지닌다는 것이다. 그러나 (8ㄱ)과 (8ㄴ)의 ‘아버님’을 화자가 어떻게 인식하였느냐에 대한 관찰은 매우 타당한 것이지만 이를 의미역과 연관짓는 것은 지나친 것이다. (8ㄴ)과 (8ㄴ’)에서 ‘아버님’의 의미역이 다르다고 보기는 어렵기 때문이다.

박양규(1975)와 비슷한 맥락에서 ‘-시-’가 경험주와 관련된다는 주장은 임홍빈(1985)에서 본격적으로 주장되었다. 주어나 주제가 아니더라도 화자의 시점(視點)이 놓이면 존대 대상이 될 수 있고, 이때 존대 대상과 관련 상황 사이에 심리적이거나 실제적인 영향 관계가 발생한다고 판단될 때 ‘-시-’가 쓰인다는 주장이다. 즉 ‘-시-’는 어떤 대상을 경험주화하는 문법 요소로 규정된다. 그리하여 다음 (9ㄱ)에서 ‘-시-’가

쓰이는 이유는 관형어인 ‘아버님’에 화자의 시점이 놓이고 ‘유품이-’라는 상황이 존대 대상인 아버님에게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라고 설명된다.

- (9) ㄱ. 이것이 아버님의 유품이다.  
       ㄱ'. \*이것이 아버님의 유품이시면 어떻게 할래요?  
       ㄴ. 아버님의 손이 떨리신다.  
       ㄷ. 아버님은 차가 고장 나셨다.

그러나 이 이론은 어떤 때 화자의 시점이 놓일 수 있고 어떤 때 시점이 놓일 수 없는지에 대한 설명이 부족하다는 문제가 있다. 예컨대 ‘-시-’가 쓰인 (9ㄱ)과 ‘-시-’가 쓰일 수 없는 (9ㄱ') 사이의 차이가 시점 부여 여부로는 충분히 설명되지 않는 것이다. 더구나 이 이론에서 주장하는 ‘심리적이거나 실제적으로 영향을 끼친다’는 내용 역시 모호하다는 문제가 있다. 다음 (10ㄱ)에서 술에 취해 들어오는 행위가 아버지에게 심리적이거나 실제적으로 영향을 끼치는 사태인지 의심스럽고 (10ㄴ, ㄷ)도 미확인 인물이나 어머니가 어떤 일이나 사태를 경험한다고 보기 어렵기 때문이다.

- (10) ㄱ. 오늘도 아버님은 술에 잔뜩 취해 들어오셨다.  
       ㄴ. 거기 누구시오?  
       ㄷ. 찬송 한 가지, 사도신경 한 구절 모르는 어머니셨다.

## 2.2.2. 호응설

호응설은 존대설과 달리 화자의 존대 의향보다 문장 내의 관계에 초점을 둔다. 발화 장면에서 어떤 인물이 상위자로 결정되면 문장 내에서 일정한 문장 성분들 사이의 언어적 관계에 의해 상위성의 호응이나 일치 발생한다고 보는 것이 호응설이기 때문이다. 존대설이 경어법을 지시물(존대 대상)과 표현(‘-시-’가 결합한 서술어) 사이의 관계로 파악

한다면 호응설은 경어법을 표현(존칭체언)과 표현(‘-시-’가 결합한 서술어) 사이의 관계로 파악한다.

호응설은 호응을 유발시키는 내용을 무엇으로 보느냐에 따라 신분성 표지설, 무정화 표지설, 일치소설로 나뉜다. ‘-시-’를 신분성 표지로 보는 주장은 이승녕(1964)에서 제기되었다.<sup>7)</sup> 이승녕(1964)에서는 ‘-시-’가 상위 신분성의 주어에 호응하여 동사에 ‘상위의 신분성’을 표시하는 문법적 표지로 간주되었다. ‘-시-’를 인구어의 인칭어미와 비슷하게 이해한 것이다.

이와 비슷한 맥락에서 더 정교화된 논의는 강창석(1987)에서 찾아볼 수 있다. 이 논의에서 ‘-시-’는 상위자 동작의 특징(즉 상위성)을 표시하는 요소로 간주되었다. ‘-시-’ 호응을 유발하는 자질을 상위자 동작의 특징으로 이해함으로써 경어법을 사회 현상의 일부가 아니라 문법의 일부로서 온전히 다룰 수 있는 길을 열었기 때문이다.

- (11) ㄱ. 바람이 부니까, (나무 위의) 아버님도 막 흔들리더라.  
       ㄱ’. 바람이 부니까, (나무 위의) 아버님도 막 흔들리시더라.  
       ㄴ. 사모님의 고통이 크시겠는데요.

그러나 이러한 주장은 (11 ㄱ, ㄱ’)에서 보듯이 상위자 주어의 서술어에 ‘-시-’가 항상 결합하지 않는 현상과 (11 ㄴ)에서 보듯이 ‘-시-’가 호응하는 문장 성분이 주어로 특정되지 않는 현상을 설명하는 데는 뚜렷한 한계를 지니고 있다. 박양규(1975)와 임홍빈(1985)에서 어느 정도 설명되었던 예들이 호응설에서는 난제로 등장한 것이다.

호응 관계를 무정화라는 관점에서 파악한 논의로는 박양규(1975)가 있다. 이 논의는 먼저 화자의 존대 의향이 주어진 존칭체언은 무정체언과 공기 제약을 같이한다고 본다. 그리고 문법적으로 무정체언인 존칭

7) 이와 비슷한 주장은 안병희(1961)에서도 볼 수 있다. 이 논문에서는 용언의 주체가 화자 자신과의 대비에서 존귀한 것으로 파악되고, 따라서 그 용언이 표시하는 동작·상태 또는 존재가 존귀하게 인식되었을 때 ‘-시-’가 사용된다고 한 바 있다.

체언이 유정체언만 허용되는 위치에 와서 생기는 선택 제약의 위배(이른바 ‘통사론적 파격’)를 해소하기 위해 ‘-시-’가 서술어 결합한다고 주장하였다. 즉 ‘-시-’는 서술어의 선택 제약을 유정체언 주어를 요구하는 것에서 유정체언 주어를 배제하는 것으로 바꾸는 기능을 한다고 본 것이다.

- (12) ㄱ. 선생님이 토론에서 밀리자/\*밀리시자 제자들은 어쩔 줄을 몰라했다.  
 ㄴ. 회사가 부동산이 많다.  
 ㄴ'. 사장님이 부동산이 많으시다.

그러나 (12ㄱ)에서 보듯이 유정체언만 허용하는 주어 자리에 존칭 체언이 와도 ‘-시-’가 쓰이지 않는 경우가 있고 (12ㄴ')에서 보듯이 유정체언만 허용하는 위치가 아님에도, 그래서 통사론적 파격이 없음에도 그 서술어에 ‘-시-’가 쓰이는 경우가 있어 이 논의 역시 설명력에 한계가 있다.

호응 관계를 생성문법의 틀 안에서 일치(agreement)로 파악한 논의로는 최현숙(1988), 강명운(1988), 유동석(1993)이 있다. 이들 논의에서는 ‘-시-’가 주어 명사구와 지정어(SPEC)-핵(head) 관계에 놓여 주어 명사구에 지배받는 위치에 있다고 전제하고, 주어 명사구와 ‘-시-’는 [+높임] 자질을 공유한다고 기술한다. 즉 ‘-시-’는 주어 명사의 [+높임] 자질에 대한 주어 일치소라는 것이다.

- (13) ㄱ. 담임 선생님은 지하철을 타고/\*타시고 출근하신다.  
 ㄴ. 김 선생이 왔어/오셨어.  
 ㄴ. 미국에 있는 아드님은 언제 돌아오나요?  
 ㄴ'. 김 선생님 들어오면 나한테 연락해 줘요.

그러나 (13ㄱ)에서 보듯이 ‘담임 선생님’이란 동일한 주어 명사구가 선행절에서는 ‘-시-’를 실현시키지 못하고 후행절에서는 ‘-시-’를 실현시킨다든지, (13ㄴ)에서처럼 동일한 ‘김 선생’이 ‘-시-’를 실현시키기도 하

고 그러지 않기도 하는 현상은 이 이론에 심각한 반례가 된다. 더구나 (13ㄷ, ㄷ')에서 알 수 있듯이 주어 명사구에는 [+높임] 자질이 배당되었으나 서술어에는 '-시-'가 쓰이지 않는 예가 적지 않다는 사실은 이 이론의 설명력을 약화시킨다.

유동석(1996)에서는 (13ㄱ)류에 대해 주어 일치소가 [+AGR] 값을 가지기도 하고 [-AGR] 값을 가지기도 하며, 또 이러한 값은 상위 범주인 시제소의 속성에 의해 결정된다고 하여 그 해결책을 제시한 바 있다. 그러나 아래에서 보듯이 '-어 보-' 보조동사 구문과 '-지 않-' 보조동사 구문은 똑같이 내포문에 시제 형태소가 실현되지 않으나 전자의 내포문에는 '-시-'가 실현되지 않고 후자의 내포문에만 '-시-'가 실현되어 이러한 설명 역시 한계가 뚜렷하다.

- (14) ㄱ. 아버지는 자리에 앉아/\*앉았어/\*앉으셔 보셨다.  
 ㄴ. 아버지는 자리에 앉지/\*앉았지/앉으시지 않으셨다.

### 2.2.3. 지시설

지시설은 경칭 대명사와 평칭 대명사의 구분과 비슷한 맥락에서 '-사' 결합형과 '-시-' 결합형의 관계를 이해하려는 입장이다. '-시-'를 사회적 관계가 부호화된 사회적 지시소로 보는 것이다. 그리고 이를 바탕으로 존대는 이러한 사회적 지시에 의해 파생된 개념으로 간주한다.

대면적 발화 상황에서 화자는 대체로 자신을 지시의 중심에 놓고 발화 행위를 수행한다. 화자는 자신을 지시의 중심에 놓고 발화에 참여하거나 등장하는 인물의 사회적 신분이나 그들 사이의 관계를 부호화하여 언어적으로 가리키는데, 이를 사회적 지시(social deixis)라 한다(Levinson 1983, Fillmore 1997). 사회적 지시의 대표적인 예에는 경칭 대명사(T/V)나 호칭어 등이 있는데, '-시-'를 사회적 지시소로 보는 이론에서는 '-시-'와 경칭 대명사, 호칭어를 함께 묶어 다룬다는 특징이 있다.

화자는 자신과 대상 인물 간에 개별적인 관계가 존재한다고 여길 때 자신의 사회적 지위나 서열을 기준 삼아 대상 인물의 상위성 여부나 하위성 여부를 판단한다. 그리고 이때 대상 인물이 상위자로 판단되면 그 인물이나 그와 관련된 행위 등을 가리킬 때 유표적인 형식으로 가리킨다.

그러나 ‘과장:과장님’, ‘죽다:돌아가다’가 드러내는 사회적 지시와 ‘오다:오시다’가 드러내는 사회적 지시는 다르다. ‘-시-’는 개체나 동작 자체의 특징(예컨대, 상위성)을 바로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해당 사태가 존대하고자 하는 개체에 관여적임을 드러내는 것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존귀한 인물의 죽는 행위를 유표적으로 가리키는 ‘돌아가다, 별세하다’류에도 ‘-시-’가 결합된다.

이 이론에서는 존대를 이러한 사회적 지시에서 파생된 것으로 이해한다. 화자는 상위자나 상위자에 관여적인 사태를 유표적 문법 수단을 이용하여 비상위자나 비상위자에 관여적인 것과 구별지어 지시함으로써 그에 대한 존대 행위를 간접적으로 수행한다는 것이다(임동훈 2000).

‘-시-’를 사회적 지시소로 보는 이론에서는 관점(perspective)이라는 개념이 중요한 역할을 한다. 대상 인물이 특정한 존재로 인식되지 않아 화자와 개별적인 관계를 맺지 못하면 화자는 그에게 사회적 지시를 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15) ㄱ. 우리가 학교에 올 시간에 학교 앞에서는 경찰관 아저씨가 언제나 교통정리를 해 주십니다. 경찰관 아저씨들은 교통정리뿐만이 아니고, 그 밖에도 여러 가지 일을 하십니다. 우리 반에서는 경찰관 아저씨를 모셔다가 이야기를 듣기로 하였습니다.

ㄴ. 경찰관 아저씨들을 우리들이 안심하고 살아갈 수 있게 하기 위하여 마을을 밤낮으로 돌아다니며 보살펴 줍니다. 어려운 일이 생겼을 때, 연락을 하면 빨리 와서 도와줍니다. ... 경찰관은 무서운 분이 아니라, 고마운 분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시-’가 쓰인 (15ㄱ)은 경찰관을 개별적 인물로 기술하고 개체로서의

경찰관을 화자와 관련시키나, ‘-시-’가 안 쓰인 (15ㄴ)은 경찰관을 직업 구분의 하나로 기술하고 경찰관을 일반인과 관련시킨다(Lukoff 1978). 이 점에서 개인적으로는 ‘-시-’를 써서 존대할 대상도 다음 (16)에서 보듯이 개인적 관계를 드러내기 어려운 인쇄물이나 공적인 방송 등에서는 ‘-시-’를 쓰지 않는다.

(16) ㄱ. 대통령이 공항에 도착했습니다.

ㄴ. 대통령께서 공항에 도착하셨습니다.

그런데 ‘-시-’를 통해 이루어지는 사회적 지시는 독립적인 것이 아니라 어떤 사태가 상위자에 관여적임을 파생적으로 가리키는 것이므로<sup>8)</sup> 그 존대 대상에는 화자의 관점(perspective)이 놓이게 된다. 즉 화자가 존대 대상의 관점을 취했을 때 후술하려는 사태가 이 개체에 관여적이라고 판단되면 그 사태에도 동일한 사회적 지시를 하게 된다는 것이다.<sup>9)</sup>

아래 (17)은 앞서 존대설과 호응설에서 설명하기 어려운 예로 제시된 것이다. 그러나 (17ㄱ)은 선생님의 관점이 아니라 제자들의 관점을 취해 문장을 구성한 것이고 (17ㄱ')은 선생님의 관점을 취해 문장을 구성한 것으로 보면 문제가 해결된다. (17ㄴ, ㄴ') 역시 화자가 사모님의 관

8) 이 점이 ‘-시-’가 상위자의 동작에 있는 어떤 특성, 즉 상위성을 나타낸다는 강창석(1987)의 주장과 크게 다른 점이다.

9) 이 이론에서 사태가 개체에 관여적인 경우는 다음 세 가지이다(임동훈 2000). 이정복(2005)에서는 ‘-시-’가 동작이나 상태, 상황의 주체를 높이는 기능을 가진다고 하였는데 (c)를 상황의 주체에 대한 설명으로 이해하면 비슷한 맥락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 a. 사태가 개체의 성질이나 상태를 기술하여 사태의 내용이 개체를 규정한다고 판단되는 경우
- b. 사태가 개체의 행위를 기술하여 그 행위의 통제력이 개체에게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 c. 사태가 개체가 놓인 상황의 한 측면을 기술하여 그것이 개체에게 관계되거나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점을 취했느냐 선생님의 관점을 취했느냐에 따라 ‘-시-’ 결합 여부가 달라진 예로 볼 수 있다. 즉 (17ㄱ, ㄴ’)에서 보듯이 개체에 대한 지시는 화자와의 개별적인 관계를 꼭 요구하진 않지만 사태에 대한 지시는 개별적인 관계와 관점 고려가 요구된다.

- (17) ㄱ. 선생님이 토론에서 밀리자 제자들은 어쩔 줄을 몰라했다.  
       ㄴ’. 선생님은 토론에서 밀리시자 얼굴이 붉어지셨다.  
       ㄴ. 사모님의 고통이 크시겠는데요.  
       ㄴ’. 사모님의 고통이 커질수록/\*커지실수록 선생님도 고통이 커졌다.

위에서 우리는 ‘-시-’가 상위성을 표시하는 사회적 지시소라고 하였지만 ‘-시-’는 비하위성을 표시하기도 한다. ‘-시-’ 결합형과 ‘-시-’ 결합형의 대립은 유무 대립이나 유표향이 항상 징표를 긍정하는 반면 무표향은 항상 징표를 부정하지 않는다. 그러나 무표향이 유표향과의 대조에서 선택이 문제될 때에는 그 징표를 부정한다(박양규 1993). 요컨대 ‘-시-’의 결합이 선택적일 때에는 ‘-시-’의 결합형이 상위성의 사회적 지시를 부정하여 하대의 느낌을 줄 수 있어 화자는 다음 (18)에서 보듯이 비하위성의 표시를 위해 ‘-시-’를 사용하기도 한다.<sup>10)</sup>

- (18) ㄱ. 김 선생, 인사 좀 하시지.  
       ㄴ. 자, 안으로 들어가시게.

### 2.3. ‘-시-’의 통사론

‘-시-’의 의미는 ‘-시-’의 분포와 밀접한 연관이 있다. 그래서 선어말 어미로서 ‘-시-’가 취하는 결합 단위가 무엇인지 살펴보는 일은 ‘-시-’의 의미를 파악하는 데 도움이 된다.

10) 그러나 ‘-시-’가 하위자에게도 쓰여 비하위성의 표시를 하는 것은 ‘-시-’의 용법 중의 하나이지 ‘-시-’의 의미는 아니다(강창석 1987).



‘-시-’는 ‘-었-’과 달리 명제 단위에 결합한다고 보기 어렵다. ‘-었-’은 명제가 나타내는 사건이 기준시 이전에 발생했음을 표시하므로 결합 단위가 명제가 되나 ‘-시-’는 어떤 사태가 상위자에 관여적임을 유표적으로 가리키므로 대체로 주어가 제외된 동사구가 그 결합 단위가 된다.<sup>11)</sup>

박진호(1994)에서는 ‘-시-’가 다른 선어말어미와 달리 ‘계시-’, ‘주무시-’, ‘잡수시-’ 등 동사 어간의 보충법적 형성을 유발한다는 점을 근거로 ‘-시-’의 결합 단위를 동사 어간으로 보았다. 그러나 첫째, Rudes(1980)에서 지적한 바 있듯이 보충법 현상은 명제 전체를 지배 영역으로 하는 시제, 양태 등에서도 발생하고 둘째, 아래 (19-1)에서 보듯이 보충법적 형성은 재구조화로 설명될 수도 있으며 셋째 ‘계시-’류는 기원적으로 어미 ‘-시-’의 결합형이긴 하나 (19-2)에서 보듯이 현대국어에서는 더 이상 용언의 ‘-시-’ 활용형과 그 통사적 행동을 같이하지 않아 박진호(1994)의 주장은 충분히 입증된 것이라 하기 어렵다.<sup>12)</sup>

(19) ㄱ. [점심을 들]-시- ⇒ 점심을 [드시]-

ㄴ. 할머니께서도 그곳에 계셔 보셨다/\*앉아서 보셨다.

위에서 보듯이 ‘-시-’가 결합하는 사태는 동사구로 실현됨이 일반적이나 사태에서 두드러지게 인식되는 명사구가 존대 대상에 화용론적으로 결속되는 상황에는 사태가 절 단위로 실현되기도 한다.

(20) ㄱ. 김 선생님은 [강아지가 암놈이 아니]세요?

ㄴ. [다녀가신 지가 벌써 이태가 되]셨는데 그래도 용하시게 제 있는

11) 이 점에서 동사구 내부에 주어의 위치를 상징하는 동사구 내부 주어 가설은 적어도 한국어의 문장 구조를 나타내는 데 적합하지 않다.

12) 더구나 다음 예들은 ‘-시-’가 동사 어간에 붙는다고 해서는 설명이 되지 않는다.

- a. 선생님은 [버스 정류장이 머]셔서 불편하시겠어요?
- b. 편지 겹봉을 보시더니 두 손으로 [낮을 가리고 우]시는걸.
- c. 가을부터 시름시름 [불편해는 하]셨지만 갑자기 돌아가셨어요.

데를 찾아오셨군요.

‘-시-’는 원래 상위자의 동작이나 상태를 유표적으로 가리키는 사회적 지시소였을 것이나, 최근에 들어와서는 꼭 상위자의 동작이나 상태를 가리키지 않더라도 상위자에 관여적이라고 판단된 사태에는 ‘-시-’가 적극적으로 쓰인다.

(21) ㄱ. [방송에 편지가 안 나오]시면 어떻게 하시려고 했습니까?

ㄴ. 고모부는 책장염을 앓으셨는데, 서울에 가서 진찰을 했더니 [(병이) 암으로 판명이 나]셨어요.

ㄷ. (선배님,) [혹시 아르바이트 들어오]시면 소개 좀 해 주세요.<sup>13)</sup>

화자가 자신과 개별적인 관계에 놓인 개체에 대해 언급할 때에는 그 개체의 관점을 고려하여 문장을 구성하는 주관화 과정이 발생하는데, 이러한 주관화 과정은 ‘-시-’의 작용역(결합 단위)을 확대하는 요인이 된다. 그래서 화자가 개체의 관점을 취해 능동적으로 문장을 구성할 때에는 개체와 사태의 관계가 (21)에서 보듯이 주어-서술어 관계에 국한되지 않는다. (21)은 썩 자연스러운 문장은 아니지만 최근 들어 구어에서 많이 사용되는 예이다.

그런데 이처럼 존대 대상이 되는 개체와 주어-서술어 관계를 이루지 못하는 사태에 결합하는 ‘-시-’는 그 작용역이 확대된 결과 개체에 대한 화자의 태도 표명(화자의 존대 의도 표시)에 적극적으로 이용된다. 문법형태소는 작용역이 확대될수록 화자 관련성이 증대되기 때문이다. 즉 (21)은 청자나 주체에 대해 화자가 지나치게 존대 의도를 표현하려 한 결과 발생한 문장이라고 할 수 있다.

앞서 ‘-시-’가 결합하는 사태는 동사구로 실현됨이 일반적이거나 사태에서 두드러지게 인식되는 명사구가 존대 대상에 화용론적으로 결속되

13) (21)의 예는 엄격히 보자면 오용례라고 할 수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오용례의 존재 자체는 ‘-시-’의 의미를 파악하는 단초가 될 수 있다. ‘-시-’의 의미가 무엇이기에 왜 이런 오용례가 발생하는가 하는 의문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21ㄱ, ㄴ)은 임동훈(2000)에서, (21ㄷ)은 이정복(1996)에서 가져온 것이다.

는 상황에서는 사태가 절 단위로 실현됨을 보았다. 이러한 현상은 이중 주어문에서도 볼 수 있다.

(22) ㄱ. 삼촌은 수완이 있으시다.

ㄴ. [[삼촌은] [[수완이 있-~~ㄹ~~]-으시-]-다]

ㄷ. [s 삼촌은 [s 수완이 있으시다]]

(22ㄱ)은 이중주어문이다. 이중주어문의 구조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견해가 있을 수 있는데 본고에서는 서술절 내포문으로 본다.<sup>14)</sup> 그런데 (22ㄱ)이 서술절 내포문이라면 그 구조는 (22ㄷ)이 아니라 (22ㄴ)이 된다. (22ㄴ)에서 서술절 서술어 ‘있-’은 상위자에 관여적인 사태가 아니므로 ‘-시-’가 결합하지 않았고 상위절 서술어 ‘수완이 있-’은 상위자에 관여적인 사태이므로 ‘-시-’가 결합하였다.

위에서 우리는 ‘-시-’가 쓰이는 구조는 개체-사태 구조이며 이것이 항상 주어-서술어 구조와 일치하지는 않는다고 보았다. ‘-시-’의 의미는 관습화된 것이어서 대체로 일정한 통사 구조를 바탕으로 쓰이나 ‘-시-’의 용법이 통사 구조에 의해 결정되지는 않는다. ‘-시-’의 용법은 언어 사용자를 떠난 언어 구조에 의해서는 온전히 기술될 수 없기 때문이다.

이 점에서 통사 구조는 우리의 인지 구조와 일정한 상관 관계에 있다. 화자는 무언가를 말하고자 할 때 마음에 두드러지게 인식되는 어떤 존재를 출발점으로 삼는 경향이 있다(Lyons 1977, MacWhinney 1977, Chafe 1994). 이러한 출발점은 발화 맥락에서 두드러지게 인식된다는 점에서 인지상의 출발점이 되는 동시에 이를 바탕으로 어떤 정보를 전달하는 발화 행위가 진행되므로 통보상의 출발점도 된다.<sup>15)</sup> 화자는 이러한 출발점을 문장을 구성하는 기둥으로 삼아 이에 연관된 어떤 기술을 매다는 식으로 문장을 구성한다.

14) 이중주어문을 서술절 내포문으로 보는 견해는 임동훈(1997, 2000) 참조.

15) 이러한 인지상의 출발점은 주어로 문법화함이 일반적이다.

- (23) ㄱ. 부친으로서는 (이 사건이) 좀 중대한 일이신 것 같았어요.  
 ㄴ. 시간 관계로 중계 방송을 마칩니다. 시청자 여러분의 양해 있으시기 바랍니다.  
 ㄷ. (선생님은 너를) 만나 보고 싶다는 말씀이셨어.  
 ㄷ'. (선생님,)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23)에서 ‘-시-’가 쓰인 이유는 주술 관계만으로 설명하기 어렵다. (23ㄱ)에서 ‘-시-’가 쓰인 이유는 ‘부친으로서는’이 ‘부친에게는’, ‘부친은’으로 바뀔 수 있는 개체라는 점에 있다. 즉 ‘부친으로서는’은 화자에게 후행 사태가 관여적인 개체로 인식된다. (23ㄴ)에서 ‘시청자 여러분’도 마찬가지다. 통사 구조로서는 주어의 한 부분인 관형어이지만 발화자에게는 ‘시청자 여러분’과 ‘양해 있-’이 개체-사태 구조로 인식되는 문맥이다. 그러나 똑같은 통사 구조라도 “시청자 여러분의 양해가 있다면 …”과 같이 쓰일 때에는 ‘-시-’가 쓰이기 어렵다. 이때 화자는 대체로 주절의 사태가 관여적인 개체에 관점을 두는 경향이 있기 때문이다. (23ㄷ)은 ‘선생님은 … 말씀이다’가 통사 구조로는 성립하지 않지만 인지 구조로는 성립함을 보여 주고 (23ㄷ')은 면전의 청자가 ‘말씀이-’에 관여적인 개체로 상정됨을 보여 준다.

### 3. 청자경어법

#### 3.1. 의미와 기능

강창석(1987)에서는 ‘-습니다’ 등의 기능이 청자를 높이는 것이 아니라 화자의 청자에 대한 공손성을 표시하는 것이라고 주장하였다. 청자경어법의 기능에 대한 본질적인 문제 제기라고 할 만하다. 그러나 최현배(1937)의 지적대로 ‘높임’이란 청자 자체를 높이는 것이 아니라 높은 청자에 부합하게 말을 높이는 것일 뿐이며, 또 ‘-습니다’는 ‘-사오-’와 달리 문말에만 쓰인다는 특징이 있으므로 ‘-습니다’의 기능을 화자의

공손성으로 설명하기는 어렵다고 판단된다. 화자의 청자에 대한 진술에서의 공손성은 ‘-습니다’가 아니라 다음 (24ㄴ)에 쓰인 ‘-사오-, -옵-, -오-’에나 해당되는 기술로 여겨진다.

- (24) ㄱ. 다음 주 일요일에 개관식이 있으니 많이 참석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ㄴ. 다음 주 일요일에 개관식이 있사오니 많이 참석해 주시옵기를 바랍니다.

청자경어는 주체경어나 호칭어와 연합하여 그 등급을 세분화하기도 한다. 다음 (25)에서 보듯이 주체와 청자가 동일인일 때는 ‘-시-’가 청자경어의 등급을 세분화하는 기능을 하기 때문이다(이익섭 1993). (25ㄱ, ㄱ')은 ‘-계’와 ‘-시계’의 경어 등급이 다름을 보여 주고 (25ㄴ)은 ‘-시오’가 ‘-오’와 달리 일반인에게도 쓰일 수 있음을 보여 주며 (25ㄷ)은 ‘-시-’가 어미의 일부로 굳어지기도 함을 보여 준다.

- (25) ㄱ. 자네, 이리 좀 오계.  
 ㄱ'. 자네, 이리 좀 오시계.  
 ㄴ. 라이트를 켜시오.  
 ㄷ. 어서 읍시오/오십시오.

그러나 (26)에서 보듯이 개인이 아니라 집단이라서 ‘-습니다’를 사용할 때라도 그 집단에 속한 사람들이 상위자가 아니면 ‘-시-’를 쓸 수 없으므로 주체경어가 청자경어에 관여하는 데는 뚜렷한 한계가 있다.

- (26) ㄱ. 여러분, 강당으로 모이기 바랍니다.  
 ㄴ. \*여러분, 강당으로 모이시기 바랍니다.

또 이익섭(1993)에서 지적한 바와 같이 호칭어 역시 청자경어의 등급을 세분화하는 기능을 한다. 이는 시간부사가 시제 어미의 기능을 세분화하는 것과 비슷하다고 할 것이다.

- (27) 가. 김 선생, 왜 안 먹어?  
 나. 김 군, 왜 안 먹어?  
 다. 명호 군, 왜 안 먹어?  
 라. 명호야, 왜 안 먹어?

### 3.2. 등분 체계

대부분의 청자경어법 논의에서 청자경어법의 등분을 기술할 때에는 청자를 얼마나 높이 대우할 것이냐에 초점을 두었다. ‘아주높임, 예사높임, 예사낮춤, 아주낮춤’이란 등급 명칭이 모두 청자를 대상으로 하고 있음이 이를 증명한다. 한마디로 그간에는 청자 쪽만 문제삼고 화자 쪽은 등급 구분의 주요 요소로 다루지 않았다.

그러나 청자경어법에서 청자에 대한 경어 표시가 기본이긴 하나 이에는 화자의 지위가 간접적으로 드러날 수밖에 없어 청자경어의 등분을 논할 때에는 [청자상위], [청자하위]라는 자질 외에 [화자상위], [화자하위]라는 자질을 설정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복수의 자질을 상정하면 왜 청자경어법의 등급이 여럿 존재하는지를 설명하는 데도 도움이 된다.

청자경어법의 등분 체계를 설정할 때 논점이 되는 것은 각 등급 사이의 관계 설정이다. 이에는 두 가지 견해가 있는데, 한 가지는 각 등급을 경어의 정도에 따라 일렬로 배열하자는 것이고 또 하나는 각 등급의 성격이 같지 않으므로 이를 두 개의 층위로 나누어 제시하자는 것이다. 전자는 일원적 체계라 한다면 후자는 이원적 체계라 할 것이다.

청자경어법의 등분을 이원적 체계로 설정하는 논의는 크게 두 가지이다. 첫째는 격식성 여부에 따라 각 등급을 나누는 것이고(서정수 1984), 둘째는 높임과 낮춤이 세분화된 1차 화계(話階)와 두루높임과 두루낮춤이 쓰이는 2차 화계로 나누는 것이다(성기철 1985).<sup>16)</sup> 이 두 견해는 등

16) 성기철(1985)에서는 하계체와 하오체가 존재하는 중년층 이상의 화계와 그렇지 않은 중년층 이하의 화계가 다르다고 보아 이를 상층 화계와 하층 화계로 나누

급을 구분할 때 ‘격식성’의 비중을 얼마나 두느냐의 차이만 있을 뿐 기본적인 체계는 대동소이하다.

김영희(2005)에서는 경어 등급 사이의 넘나듦 현상을 바탕으로 일원적 경어 체계를 부정하고 이원적 체계를 옹호하였다. 해라체, 반말체, 하계체, 하오체, 해요체, 합쇼체의 순서로 경어 등급이 나누어진다고 할 때 인접 등급 사이엔 넘나듦이 가능하나, 하계체와 하오체만은 넘나듦이 불가능하다.<sup>17)</sup> 김영희(2005)에서는 이런 사실에 근거를 두어 경어 등급은 넘나듦이 불가능한 ‘합쇼체, 하오체, 하계체, 해라체’를 한 별의 화계로 설정해야 하고 이들과 넘나듦이 가능한 ‘반말체, 해요체’는 또 한 별의 화계로 설정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즉 해라체와 반말체, 반말체와 하계체, 하오체와 해요체, 해요체와 합쇼체 사이의 넘나듦은 반말체와 해요체가 다른 층위의 화계에 속하기 때문에 그런 것이라는 것이다.

그러나 하계체와 하오체는 모두 격식체로서 그 쓰이는 자리가 어느 정도 고정되어 있어 이들 사이에 넘나듦이 자유롭지 않은 사실은 자연스러운 것이다. 그래서 아래 표 (29)에서 보듯이 일원적 체계에도 격식체와 비격식체의 구분을 둔다면 이러한 현상은 충분히 설명 가능하다. 경어 등급 간의 넘나듦이 자연스럽게 되는 조건으로 인접 등급이라는 조건 외에 격식체와 비격식체 사이라는 조건을 추가로 설정하면 일원적 체계에서도 위의 현상은 예측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청자경어의 등분 체계를 세울 때 논점이 되는 또 하나의 문제는 하오체와 하계체를 어떻게 볼 것인가이다. 화자와 청자가 한정되는 특징이 있는 ‘하오체, 하계체’를 일반적인 청자경어 등급과 같이 취급하는

---

어 기술하고 있다.

17) 그러나 사실 청자경어 등급 사이의 넘나듦은 그리 엄격하지 않다. 다음 예에서 보듯이 합쇼체가 해요체, 하계체, 반말체와 섞여 쓰이는 현상도 존재하기 때문이다.

“오래간만입니다. 언제 귀국하셨나요? 벌써 한참 되셨나? 아, 지난 달 귀국하셨다고 했지.”

게 옳은가 하는 질문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지금의 10대, 20대가 하계체, 하오체를 안 쓴다고 해서 하계체, 하오체의 등급상의 지위가 손상되는 것은 아니다. 이들도 나이가 들면 자연스레 하계체, 하오체를 쓰는 자리가 생기기 때문이다. 더구나 개인적 위계 관계를 따지기 어려운 다소 낮은 사람에게 상대방이 하위자로 대접받지 않는다는 뉘앙스를 풍기면서도 화자 역시 이들에게 하위자처럼 행동하기는 싫은, 그래서 해요체를 쓰고 싶지 않은 경우는 다음 예에서 보듯이 하오체 외의 다른 화계가 잘 쓰이기 어렵다는 점에서 하계체, 하오체 역시 청자경어의 한 등급을 이루고 있음은 분명하다 하겠다.<sup>18)</sup>

(28) ㄱ. 좀 지나가도 되겠소?

ㄴ. A: 거 누구요? B: 나요.

ㄷ. 웬 행패요? 이게 무슨 짓들이요?

위에서 우리는 청자경어의 등급이 [청자상위], [청자하위] 자질 외에 [화자상위], [화자하위] 자질을 설정함으로써 더 체계적으로 구분될 수 있다고 하였다. 해라체, 반말체, 하계체, 하오체, 해요체, 합쇼체를 이러한 복수의 자질에 따라 규정지으면 다음과 같다.<sup>19)</sup>

18) 청자경어의 등급은 주로 어말어미에 의해 표시되나 다음에서 보듯이 대명사에 의해서도 어느 정도 드러난다(이익섭 2005). 이때 ‘자네, 당신’처럼 하계체, 하오체와 호응하는 대명사가 존재한다는 사실 역시 하계체, 하오체의 경어 등급상의 지위를 뒷받침한다고 판단된다.

a. 네 말이 맞다. / 거기 누구니?

b. 네 말이 맞아. / 거기 누구야?

c. 자네 말이 맞네. / 거기 누군가?

d. 당신 말이 맞소. / 거기 누구요?

e. 아저씨 말이 맞아요. / 거기 누구예요(누구세요)?

f. 선생님 말이 맞습니다. / 거기 누구십니까(누굽니까)?

19) 신문이나 소설, 구호 등에서 개별화되지 않은 청자를 대상으로 하지 않는 말투가 있다(이 말투에 대해서 “특정한 개인을 대상으로 하지 않는” 등으로 기술하는 것은 다소 부정확하다. “충장은 물러가라”에서 보듯이 특정한 개인에게도 이 말투는 쓰일 수 있기 때문이다. 이 점에서 본고는 “개별화되지 않은”이란 표현을



(29)

해라체	[+청자하위]	[+화자상위]	[+격식]
반말체	[-청자상위]	[+화자상위]	[-격식]
하계체	[-청자상위]	[-화자하위]	[+격식]
하오체	[-청자하위]	[-화자하위]	[+격식]
해요체	[-청자하위]	[-화자상위]	[-격식]
합쇼체	[+청자상위]	[-화자상위]	[+격식]

위에서 보듯이 각 등급은 먼저 [+청자상위] 단계, [-청자하위] 단계, [-청자상위] 단계, [+청자하위] 단계로 나뉘고, 이들이 다시 [-화자상위], [-화자하위], [+화자상위]로 나뉜다. 합쇼체는 [+청자상위] 단계이고, 해요체와 하오체는 [-청자하위] 단계이며, 하계체와 반말체는 [-청자상위] 단계이다. 청자 자질만 놓고 보면 합쇼체와 해라체가 분명하게 구분되고 해요체와 하오체, 하계체와 반말체는 한데 묶인다. 그러나 이에 화자 자질을 추가하면 합쇼체와 해요체는 [-화자상위]로, 하오체와 하계체는 [-화자하위]로, 반말체와 해라체는 [+화자상위]로 한데 묶인다.

[+청자상위] 자질을 가진 등급은 합쇼체 하나뿐이어서 합쇼체는 [+청자상위]로만 규정될 수 있다.<sup>20)</sup> 그러나 [+화자상위] 자질을 가진 등급

---

사용한다). 이들은 남기심·고영근(1985)에서 지적하였듯이 하라체라고 할 만한 것으로 평서문에서는 ‘-다/-는다’, 의문문에서는 ‘-은가/-는가’, 명령문에서는 ‘-라’를 쓴다. 그러나 이들은 구체적인 청자를 대상으로 한 경어 등급이 아니므로 본 고의 경어 등분 체계에서는 제외하기로 한다.

- a. 어제 서울에는 최악의 황사가 왔다.
- b. 다음 중에서 알맞은 답을 고르라.
- c. 인생이란 무엇인가?

20) [+청자상위]는 [-화자상위]를 전제한다. 따라서 합쇼체는 [+청자상위]만으로도 규정될 수 있다. 그러나 [+청자하위]는 [+화자상위]를 전제하지 않는다. 이 점에 서 해라체의 [+청자하위], [+화자상위] 조합은 잉여적이지 않다.

은 둘이 있어 반말체와 해라체가 [-청자상위]와 더 좁은 영역의 [+청자하위]로 나뉜다. 반말체는 해라체 영역보다 높은 영역을 차지할뿐더러 해라체의 영역을 차지하기도 한다. [+청자하위]인 해라체에 비해 [-청자상위]인 반말체가 상대방을 더 어려워하는 말투이고 그만큼 쓰임의 폭도 더 넓다.<sup>21)</sup>

하계체와 하오체는 [-화자하위] 자질을 공유하면서 전자는 [-청자상위]이고 후자는 [-청자하위]라는 점에서 구분된다. 하오체는 [-청자하위], [-화자하위]로 청자 자질과 화자 자질이 같아 화자가 청자를 거의 대등하게 대접하는 느낌을 주며, 상대방을 낮춘다는 뉘앙스를 풍기지 않으면서 자신 역시 낮추기 싫을 때에는 낯선 사람에게도 쓸 수 있는 말투가 된다. 반면에 하계체는 [-청자상위] 자질을 가지고 있어 낯선 사람에게는 쓰기 어렵다.

해요체와 합쇼체는 [-화자상위] 자질을 공유하면서 전자는 [-청자하위]이고 후자는 [+청자상위]라는 점에서 구분된다. 해요체는 합쇼체와 같이 [-화자상위]라는 점에서 정중한 말투이긴 하나 [-청자하위]라는 점에서 [+청자상위]인 합쇼체보다 사용 폭이 넓고 그만큼 청자에 대한 경어 강도가 약하다. 이 점에서 선생님이나 할아버지처럼 청자가 화자보다 사회적으로 상위자임이 뚜렷할 때에는 해요체가 다소 부적절하게 들리기도 한다.<sup>22)</sup>

그런데 위에서 해라체와 합쇼체, 반말체와 해요체는 서로 대칭이 되는 등급이 아니다. 해라체, 반말체에 비해 합쇼체, 해요체의 사용 폭이

21) 이승희(2004)에서는 반말체가 역사적으로 하계체 영역의 일부를 차지하게 되었다고 하였다. 반말체가 하계체와 마찬가지로 [-청자상위] 자질을 가지는 것은 이러한 역사적 변화를 반영하는 것으로 추정된다. 반말체가 하계체처럼 [-청자상위]의 자질을 가짐에 따라 “그만 좀 하셔”에서 보듯이 반말체는 경우에 따라 ‘-시’와의 결합이 가능하게 되었다.

22) 반면에 상대방이 성인이긴 하지만 한참 연하인 경우에는 “이거 얼마요?”나 “이거 얼마예요?”라고 할 수는 있으나 “이거 얼마입니까?”라고 말하기는 어려운 듯하다. 이 점에서 [-청자하위]인 하오체와 해요체는 [+청자상위]인 합쇼체와 뚜렷한 차이가 있다.

더 넓기 때문이다. 해라체와 합쇼체가 대칭이 되려면 [+청자하위], [+화자상위]인 해라체에 맞추어 합쇼체도 [+청자상위], [+화자하위] 자질을 가져야 하나 합쇼체는 [-화자상위] 자질을 가지고 있다. 이는 공손성의 원리에 따라 상위 화계는 하위 화계에 비해 위계 관계가 분명치 않은 경우에도 쓰일 수 있기 때문이다. 해요체가 반말체보다 사용 폭이 넓은 것도 같은 이유이다.

청자경어의 등분은 [격식] 자질에 의해서도 분류될 수 있다. 격식성의 정도는 말체뿐만 아니라 발화의 주체가 무엇인가, 발화가 쓰이는 무대나 상황이 무엇인가, 발화자 사이의 관계가 무엇인가에 따라 결정되므로 화자 자질이나 청자 자질과 달리 청자경어의 등급을 분류할 때 다소 부차적이라 할 만하다.<sup>23)</sup> 그렇지만 말체 자체도 일정하게 격식성의 정도를 표현하므로 본고에서는 (29)에서 보듯이 이를 청자경어의 등급을 분류할 때 한 가지 기준으로 삼고자 한다.

격식성(formality)의 정도는 여러가지 차원에서 논의할 수 있지만 우선적으로 Labov(1972)에서 주장한 바와 같이 화자가 자신의 발화에 쏟는 주의력(attention)의 양으로 판단할 수 있을 듯하다. 즉 화자가 말을 할 때 자신의 말에 얼마큼 신경을 쓰면서 발화를 하느냐에 따라 격식성의 정도를 파악하는 것이다.

이러한 기준에 따른다면 반말체와 해요체는 격식성의 정도가 낮다고 할 수 있다. 이 두 말체는 19세기 들어 등장하여 화자와 청자의 상하 격차가 크지 않은 상황에 쓰임으로써 각각 ‘하계체’와 ‘하오체’의 영역을 일부 침범하였다(이승희 2004). 그리고 현대국어에서는 각각 ‘해라체’, ‘합쇼체’와 넘나들어 쓰이게 되면서 상대적으로 화자 청자 간에 위계 관념이 엄격하지 않는 상황에도 널리 쓰이게 되었다. 이 점에서 반말체와 해요체는 화자가 자신의 말에 쏟는 주의력의 양이 적다고 할 수 있다.<sup>24)</sup>

23) 이익섭(1974)에서는 격식성을 친밀도와 반대되는 개념으로 보았다. 그러나 본고에서는 친밀도가 격식성을 규정짓는 한 요소일 뿐이라고 생각한다.

24) 화자가 청자에게 일정한 경어 등급을 사용할 때에는 상위자에게 쓰는 등급일수

반말체는 해라체에 비해 격식성의 정도가 낮은데, 이는 화자 자질, 청자 자질로도 설명될 수 있다. 반말체와 해라체는 [+화자상위] 자질을 공유하지만 반말체는 [+청자하위]인 해라체와 달리 [-청자상위]로 그 사용 폭이 넓다. 즉 반말체는 청자가 하위일 때뿐만 아니라 청자가 동위일 때도 쓰일 수 있다. 이처럼 반말체는 그 사용 범위가 특정한 청자 계층에 한정되지 않음으로써 상대적으로 덜 엄격한 화계로 인식이 된다.

반말체, 해요체와 달리 해라체와 합쇼체, 그리고 하계체와 하오체는 격식성의 정도가 높다고 할 수 있다. 합쇼체는 가장 정중하여 방송이나 면접 등 가장 격식적인 상황에 쓰이며 해라체는 '아무개가 아무개에게 땅땅 해라한다'라는 말이 있듯이 화자가 자신과 청자 사이의 사회적 관계를 분명히 의식할 때 쓰여 이 두 화계는 비교적 위계 관념이 분명한 말투이고, 하계체와 하오체는 화청자가 어느 정도 나이가 들어야 쓸 수 있다는 점에서 모두 발화 참여자의 사회적 배경을 크게 의식하는 말투이기 때문이다.

#### 4. 결론

현대국어 경어법은 크게 주체경어법과 청자경어법으로 나뉜다. 객체 경어법은 비록 '-님', '께' 등을 통해 목적 인물(target)을 표시할 수 있으나 문법적 수단을 통해 규칙적으로 표시되지 않으며, 단어 차원에서 유표적으로 쓰이는 '드리다'류도 중세국어의 '-습-'과는 성격을 달리하기 때문이다.

---

록 자신의 발화에 쏟는 주의력이 양이 크다고 볼 수도 있다. 이 점에서 '화자가 자신의 말에 쏟는 주의력의 양'이란 정의는 다소 모호한 점이 있다. 그렇지만 화자, 청자의 위계 차이를 덜 의식한다거나 좀더 다양한 무대(setting)에서 사용된다거나 하는 현상 등을 포괄적으로 고려하여 주의력을 측정한다면 본고의 주장이 크게 무리하다고 생각되지는 않는다.

주체경어법은 어휘와 문장 구조 양 측면에서 관습적으로 부호화되어 있다. 어휘적 경어는 유표적 단어, 존칭 접사, 존칭 어근, 보충법에 의해 실현되는데, 유표적 단어로는 한자어나 저빈도어 등의 비일상어와 완곡어가 쓰인다.

주체경어법은 통사적으로 서술어에 어미 ‘-시-’가 붙어 규칙적으로 표시된다. ‘-시-’의 의미에 관한 기존 논의들은 크게 존대설, 호응설, 지시설로 나뉘볼 수 있다. 존대설은 ‘-시-’에 대해 화자의 존대 의사를 표시하는 문법 형식이라고 보며, 호응설은 상위성 자질을 지닌 개체가 주어 자리에 올 때 이에 호응하여 서술어에 나타나는 문법 형식으로 본다. 그리고 지시설은 ‘-시-’를 발화 참여자 간의 특정한 사회적 관계를 유표적으로 가리키는 요소로 본다.

존대설은 ‘-시-’가 상위자뿐만 아니라 하위자에게도 쓰이는 현상을 잘 설명해 준다는 이점이 있으나 화자의 존대 의향이 부여된 주체이더라도 그 서술어에 ‘-시-’가 쓰이지 못하는 예나 주체가 아니더라도 관련된 서술어에 ‘-시-’가 실현된 예를 설명하기 어렵다는 문제가 있다. 다만 임홍빈(1985)에서 제기된 경험주 존대설은 ‘-시-’의 용법을 설명할 때 화자의 시점(視點)이란 개념을 도입하고 존대 대상과 관련 상황 사이의 관계에 주목하였다는 점에서 이론상의 설명력을 증대시켰다고 할 수 있다.

호응설은 존대설과 달리 화자의 존대 의향보다 문장 내의 관계에 초점을 둔다. 즉, 발화 장면에서 어떤 인물이 상위자로 결정되면 문장 내에서 일정한 문장 성분들 사이의 언어적 관계에 의해 상위성의 호응이나 일치가 발생한다고 본다. 그러나 이 주장은 ‘-시-’가 호응하는 문장 성분이 주어로 특정되지 않고 통사 구조만으로는 ‘-시-’ 호응 관계를 충분히 설명하기 어렵다는 점에서 일정한 한계가 있다.

지시설은 ‘-시-’를 경칭 대명사, 호칭어 등과 마찬가지로 사회적 지시(social deixis)의 기능을 담당하는 문법 형식으로 본다. 다만 ‘-시-’는 다른 사회적 지시소와 달리 파생적 성격을 띤다. 즉 ‘과장:과장님’, ‘죽다:돌아가다’가 드러내는 사회적 지시는 개체나 동작 자체의 사회적 상

위성을 바로 가리키나 ‘오다:오시다’가 드러내는 사회적 지시는 독립적인 것이 아니라 관련 사태가 상위자에 관여적임을 파생적으로 가리킨다는 것이다.

‘-시-’의 사회적 지시가 독립적이지 않다는 사실은 개체가 드러내는 사회적 지시와 사태가 드러내는 사회적 지시 사이에 일정한 호응이 존재함을 전제한다. 그러나 이러한 호응은 기계적이지 않다. 사태가 나타내는 사회적 지시는 화자가 존대 대상이 되는 개체의 관점을 취했을 때 그 개체에 관여적이라고 판단될 때만 실현되는 것이기 때문이다.

지시설은 ‘-시-’가 나타내는 존대 기능은 이러한 사회적 지시에서 나온 것으로 본다. 즉 화자가 상위자나 상위자에 관여적인 사태를 유표적인 문법 수단을 이용하여 비상위자나 비상위자에 관여적인 것과 구별지어 지시함으로써 그에 대한 존대 행위를 간접적으로 수행한다는 것이다. 이 이론은 ‘-시-’를 존대소로 보지 않고 지시소로 봄으로써 ‘-시-’가 선어말어미 중에서 어간에 가장 가까이 결합하는 현상도 비교적 잘 설명한다.

‘-시-’가 결합하는 사태는 동사구로 실현됨이 일반적이나 사태에서 두드러지게 인식되는 명사구가 존대 대상에 화용론적으로 결속되는 상황에서는 사태가 절 단위로 실현되기도 한다. 그리고 이처럼 ‘-시-’의 작용역이 확장된 경우는 ‘-시-’가 화자의 태도 표명에 적극적으로 이용되기도 한다.

청자경어법에 대해서는 이들이 화자의 청자에 대한 공손성을 표시하는 것이라는 주장이 있었으나 이는 청자경어법이 종결어미에만 실현되는 현상을 잘 설명하지 못한다는 문제가 있다. 청자경어법은 종결어미에 의해 실현되며, 이들이 주체경어법이나 호칭어와 연합하면 청자경어의 등급을 더 세분화하기도 한다.

그간 청자경어법의 등분을 기술할 때에는 청자를 얼마나 높이 대우하느냐에만 초점을 두었다. 그러나 청자에 대한 경어에는 화자의 지위가 간접적으로 드러날 수밖에 없어 그 등분을 논할 때에는 [청자상위], [청자하위]라는 자질 외에 [화자상위], [화자하위] 자질도 설정할 필요

가 있다. 이렇게 복수의 자질을 상정하면 왜 청자경어법의 등급이 여럿 존재하는지도 쉽게 설명된다.

청자경어의 등분 체계를 세울 때에는 각 등급 사이의 관계를 이원적으로 볼 것이냐, 일원적으로 볼 것이냐의 문제와 하계체, 하오체를 다른 등급과 동일하게 등분 체계의 일원으로 다룰 것이냐 하는 문제가 있다. 본고는 등급 사이의 넘나들 현상, 화청자의 범위 등을 고려해도 하계체, 하오체를 포함하여 각 등급을 일원적으로 세우는 것이 합당함을 주장하였다.

## 참고문헌

- 교육부(1991), 《고등학교 문법》, 성균관대 대동문화연구원.
- 강창석(1987), 국어 경어법의 본질적 의미, 《울산어문논집》 3, 울산대 국문과, 31-54.
- 김석득(1968), 한국어 존대형의 확대 구조, 《인문과학》 20, 연세대 인문과학연구소, 43-64.
- 김영희(2005), 상대 높임법의 대우 등분 체계, 《한국어 통사 현상의 의의》, 역락, 345-368.
- 남기심·고영근(1985), 《표준 국어문법론》, 탑출판사.
- 박양규(1975), 존칭체언의 통사론적 특징, 《진단학보》 40, 진단학회, 81-108.
- 박양규(1991), 국어 경어법의 변천, 《새국어생활》 1-3, 국립국어연구원, 23-39.
- 박양규(1993), 존대와 겸양, 《국어사 자료와 국어학의 연구》, 문학과지성사, 338-351.
- 박진호(1994), 선어말어미 '-시-'의 통사 구조상의 위치, 《관악어문연구》 19, 서울대 국문과, 75-82.
- 서정수(1972), 현대국어의 대우법 연구, 《어학연구》 8-2, 서울대학교 어학연구소, 78-97.
- 서정수(1984), 《존대법 연구》, 한신문화사.
- 성기철(1970), 국어 대우법 연구, 《논문집》 4, 충북대학교, 35-58.
- 성기철(1985), 《현대국어 대우법 연구》, 개문사.

- 성기철(1991), 국어 경어법의 일반적 특징, 《새국어생활》 1-3, 국립국어연구원, 2-22.
- 성기철(1990), 공손법, 《국어연구 어디까지 왔나》, 동아출판사, 401-408.
- 안병희(1961), 주체점양법의 접미사 ‘-습-’에 대하여, 《진단학보》 22, 진단학회, 103-126.
- 유동석(1993), 국어의 매개변인 문법, 서울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유동석(1996), 보조용언 구문의 높임법, 《이기문 교수 정년퇴임기념논총》, 신구문화사, 407-429.
- 이승녕(1964), 경어법 연구, 《진단학보》 25·26·27, 진단학회, 309-366.
- 이승희(2004), 국어의 청자높임법에 대한 통시적 연구, 서울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이운하(1989), {-께서}의 문법, 《재효 이용주 박사 회갑기념논문집》, 한샘, 461-491.
- 이익섭(1974), 국어 경어법의 체계화 문제, 《국어학》 2, 국어학회, 39-64.
- 이익섭(1993), 국어 경어법 등분의 재분 체계, 《해양 문학과 국어국문학》, 형설출판사, 381-403.
- 이익섭(2005), 《한국어 문법》, 서울대학교 출판부.
- 이정복(1996), 고려가요에 쓰인 형태소 ‘-시-’의 재해석, 《관악어문연구》 21, 267-296.
- 이정복(2005), 국어 경어법에 대한 사회언어학적 접근, 《국어학회 제32회 겨울학술대회 발표자료집》, 국어학회, 315-338.
- 임동훈(1997), 이중주어문의 통사 구조, 《한국문화》 19, 서울대 한국문화연구소, 31-66.
- 임동훈(2000), 《한국어 어미 ‘-시-’의 문법》, 태학사.
- 임동훈(2004), 한국어 조사의 하위 분류와 결합 유형, 《국어학》 43, 국어학회, 119-154.
- 임흥빈(1976), 존대·점양의 통사 절차, 《문법연구》 3, 탑출판사, 237-265.
- 임흥빈(1985), {-시-}와 경험주 상점의 시점(視點), 《국어학》 14, 국어학회, 287-336.
- 임흥빈(1986), 청자 대우 등급의 명명법에 대하여, 《국어학신연구: 약천 김민수 교수 화갑 기념》, 탑출판사, 535-546.
- 임흥빈(1990), 어휘적 대우와 대우법 체계의 문제, 《강신항 교수 회갑 기념 국어학논문집》, 태학사, 705-741.
- 장석진(1973), A Generative Study of Discourse, 《어학연구》 9-2(별권), 서울대 어학연구소, 226-238.



- 조남호(2005), 국어 대우법의 어휘론적 이해, 《국어학회 제32회 겨울학술대회 발표자료집》, 국어학회, 305-314.
- 최현배(1937), 《우리말본》, 경성: 연희전문학교 출판부. 역대한국문법대계 1 47에 재록됨.
- 허웅(1954), 존대법사, 《성균학보》 1, 허웅(1963)에 재록됨.
- 허웅(1961), 서기 15세기 국어의 존대법과 그 변천, 《한글》 128, 한글학회, 133-190.
- 허웅(1962), 「존대법」의 문제를 다시 논함, 《한글》 130, 한글학회, 423-441.
- 허웅(1963), 《중세국어 연구》, 정음사.
- 허웅(1975), 《우리 옛말본-15세기 국어 형태론》, 샘문화사.
- 강명윤(1988), Topics in Korean Syntax: Phrase Structure, Variable Binding and Movement, Ph.D. dissertation, MIT.
- 최현숙(1988), Restructuring Parameters and Complex Predicates—A Transformational Approach, Ph.D. dissertation, MIT.
- Brown, P. & S. C. Levinson(1978=1987), *Politeness: Some universals in language usa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 Chafe. W.(1994), *Discourse, Consciousness, and Time*, The University of Chicago Press.
- Fillmore, C. J.(1997), *Lectures on Deixis*, CSLI Publications.
- Labov, W.(1972), *Sociolinguistic Patterns*, University of Pennsylvania Press.
- Levin, H., Long, S. and Schaffer, C. A.(1981), The formality of the Latinate lexicon in English, *Language and Speech* 24-2, 161-171.
- Levin, H., Novak, M.(1991), Frequencies of Latinate and Germanic words in English as determinants of formality, *Discourse Processes* 14, 389-398.
- Levinson, S. C.(1983), *Pragmatics*, Cambridge University Press.
- Lukoff, F.(1978), On Honorific Reference, 《논외 허웅 박사 환갑 기념 논문집》, 과학사, 539-562.
- Lyons(1977), *Semantics* 1, 2,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 MacWhinney, B.(1977), Starting Points, *Language* 53-1, 152-168.
- Rudes, B. A.(1980), On the Nature of Verbal Suppletion, *Linguistics* 18, 655-676.

[200-702 강원도 춘천시 한림대학길 39 한림대학교 국어국문학과]

전화 : 033-248-1517, 010-3199-1517

E-mail : limege@hallym.ac.kr

접수 일자 : 2005. 12. 16.

게재 확정 일자 : 2006. 5. 19.

Honorific Systems in Modern Korean [Lim, Dong-Hoon]

현대국어 경어법의 체계 [임동훈]

Korean Honorifics can be divided into the Subject Honorifics and Hearer Honorifics. Although the Object Honorifics can represent the

target person by ‘-nim, -kke’, it can’t be realized regularly by syntactical means. So the Object Honorifics is not par with the former two honorifics.

The Honorifics is encoded conventionally from both lexical and syntactical aspect. Lexical honorifics is realized through honorific affixes and roots, suppletions, marked words such as low frequency words, euphemistic words.

The Subject Honorifics is realized by adding an ending ‘-si-’ to a predicate, and the function of ‘-si-’ is to represent the superior/non-superior social relation as a deictic item. Social deixis can be expressed through both lexical means such as honorific pronouns, terms of address, marked words and syntactical means such as an ending ‘-si-’. The former works on the basis of the distance between speaker and the target person, and is realized into honorific nouns, verbs. But the latter is basically derivative in nature because it works when the speaker takes the subject’s perspective and thinks that the predicate is relevant to the target person.

This aspect of ‘-si-’ as a social deictic item can easily explain the function of honorifics. When the speaker represents the superior entity and its belongings distinctively from the non-superior entity through marked grammatical means, it indirectly express an act of respect. This theory also can explain the reason why ‘-si-’ is combined closest with the stem of verbs.

The situations which ‘-si-’ combines with are generally realized into verb phrases, but these can be realized into clause units when the prominent noun phrase of the situations is bound with the target person pragmatically. This kind of scope extension of ‘-si-’ can affect the function of ‘-si-’, and ‘-si-’ is sometimes used for expressing the speaker’s respectfulness.

As for Hearer Honorifics, there is an opinion that it represents the speaker's politeness toward the hearer. But this claim is not harmonious with the fact that this honorifics is syntactically realized only on the terminating endings. Hearer Honorifics, when combined with the terms of address and the Subject Honorifics, can differentiate the speech levels.

Until now when we describe the speech levels of Hearer Honorifics, the focus of interest has been placed just on how to show honor to the hearer. But how to treat the hearer can't be clearly separated from how to express the status of the speaker, so we need to develop the theory which comprises the speaker features [speaker high], [speaker low] as well as the hearer features [hearer high], [hearer low]. These multiple features can easily explain the reason why Hearer Honorifics has several speech levels.

When we establish the system of speech levels of Hearer Honorifics, two kinds of problems arise. The first one is to decide between a dualistic system and a unitary system. And the second one is how to deal with *Hage-style* and *Hao-style*. We concluded that the unitary system of Hearer Honorifics is more appropriate than the dualistic one, even considering the shift between speech levels, the social extent of speakers and hearers.

Key words : Subject Honorifics, Hearer Honorifics, Object Honorifics,  
Social deixis, Speech level